

# 평직 탄소섬유복합재료의 파괴인성 및 파괴 거동

## Fracture Toughness and Behavior of Woven Carbon Fibered Reinforced Composite Materials

\*박흥선<sup>1</sup>, 금진화<sup>1</sup>, 최정훈<sup>1</sup>, 김상영<sup>1</sup>, 구재민<sup>2</sup>, #석창성<sup>2</sup>

\*H. S. Park<sup>1</sup>, J. H. Keum<sup>1</sup>, J. H. Choi<sup>1</sup>, S. Y. Kim<sup>1</sup>, J. M. Koo<sup>2</sup>, #C. S. Seok(seok@skku.edu)<sup>2</sup>

<sup>1</sup>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sup>2</sup>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Key words : Virtual Crack Closure Technique, J-integral, Energy Release Rate, Fracture

### 1. 서론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가 금속재료에 비하여 높은 비강성과 비강도 등의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량화가 요구되고 있는 항공기와 자동차 등에 금속재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2</sup>. 이러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직물형태에 따라 크게 일방향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와 평직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일방향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유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을 갖는 구조물에 적용되지 못하고, 비교적 단순한 형상인 평판이나 파이프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평직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높은 유연성으로 인하여 복잡한 구조물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 재료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나 자동차용 구조물에 사용되는 복합재의 경우, 안전에 대한 요구 때문에, 정확한 물성을 평가하고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운행 중 발생하는 결함의 성장에 의한 파괴는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괴역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초기 균열길이와 섬유배열방향의 변화가 직조된 탄소섬유 강화복합재료의 파괴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과 시험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J적분과 가상균열 닫힘법을 이용하여 구한 에너지 해방율의 값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CT시험을 이용하여 파괴저항시험을 실시한 후, 일반계적법으로 에너지 해방율을 구하였으며, 이를 해석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 2. 관련 이론

#### 2.1 가상균열 닫힘법

가상균열진전법은 실제 균열 길이 a에서 가상 균열 길이 a+Δ로 진전하기 위한 일 W와 a+Δ에서 a로 균열이 닫기 위한 일은 서로 같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sup>2</sup>. 즉,

$$W = \frac{1}{2} \int_0^{\Delta} v(r) \sigma_y (\Delta - r) dr \quad (1)$$

이다. 여기서 v는 균열 표면에서의 변위값이고  $\sigma_y$ 는 균열선단에서의 응력값이다. 그리고 에너지 해방율 G는 가상 균열 진전량 Δ에 대해 한 일 W로 나타낼 수 있다.

$$G = \frac{W}{\Delta} = \frac{1}{2\Delta} \int_0^{\Delta} v(r) \sigma_y (\Delta - r) dr \quad (2)$$

2차원 문제에 있어서 Mode I과 mode II에 대한 에너지 해방율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G_I = -\frac{1}{2\Delta\alpha} [F_{\eta,i}(U_{\eta,l} - U'_{\eta,l}) + F_{\eta,j}(U_{\eta,m} - U'_{\eta,m})] \quad (3)$$

$$G_{II} = -\frac{1}{2\Delta\alpha} [F_{\xi,i}(U_{\xi,l} - U'_{\xi,l}) + F_{\xi,j}(U_{\xi,m} - U'_{\xi,m})]$$

#### 2.2 J-integral과 에너지 해방율의 관계

Fig. 1과 같이 균열선단 주위의 임의의 반시계방향의 경로(Γ)에 대한 Rice<sup>3</sup>에 의해 제안된 J 적분은 아래의 식과 같다.

$$J = \int_{\Gamma} W dy - \int_{\Gamma} (t_x \frac{\partial u_x}{\partial x} + t_y \frac{\partial u_y}{\partial x}) ds \quad (4)$$

여기서, Γ= 균열선단의 임의의 경로

$$W = \int_0^{\epsilon_{ij}} \sigma_{ij} d\epsilon_{ij} \quad u = \text{변위벡터}$$

$t_x, t_y = x, y$  축을 따르는 건인력 벡터의 성분

ds= 곡선 Γ을 따라 변하는 길이 증분

$\sigma_{ij}, \epsilon_{ij} =$  응력, 변형률 텐서

### 2.3 일반 계적법

일반 계적법<sup>4</sup>은 에너지 해방율에 기초를 둔 것으로 전에너지 해방율  $G_T(a, x)$ 은 아래와 같다.

$$G_T = -\frac{1}{B} \left[ \frac{\partial U}{\partial a} \right]_x \quad (5)$$

(B: thickness, a: crack length, x: displacement)

$$U = \int_0^x P dx = U(a, x) \quad P = P(a, x): \text{applied load}$$

$$\left[ \frac{\partial U}{\partial a} \right]_x = \frac{dU}{da} - \left[ \frac{\partial U}{\partial a} \right]_a \cdot \frac{dx}{da} \quad (6)$$

$$= \frac{dU}{da} - P \frac{dx}{da}$$

식 (6)를 식 (5)에 대입하고, 계적선 L을 따라 양변을 적분하면 식 (7)와 같다.

$$-B \int_L G_T da = \int_L dU - \int_L P dx \quad (7)$$

식 (7)의 우변은 Fig. 2와 같다. 계적선 L은 D와 F사이의 점선이며, 최고 하중점들의 계적이다. 첫째항은 OFG의 면적이고, 둘째항은 DFG의 면적이다. 따라서 식 (7)의 오른쪽 항은 빗금 친 부분, OFD의 면적이다. 계적선 L에서 임의의 점에 대한 G는 식 (7)의 양변을 균열길이에 대하여 미분하여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_T = -\frac{1}{B} \frac{dU_L}{da} \quad (8)$$

$G_T$ 가 계적선을 따라서 일정하게 변화할 때  $G_T$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G_T = -\frac{1}{B} \frac{\Delta U_L}{\Delta a} \quad (9)$$

### 3. 유한요소 해석 및 실험

#### 3.1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 해석한 유한요소 모델은 Fig. 3에 나타난 CT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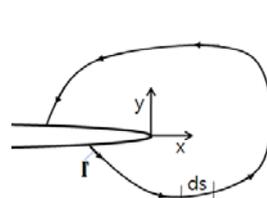


Fig. 1 Arbitrary contour around the tip of a cr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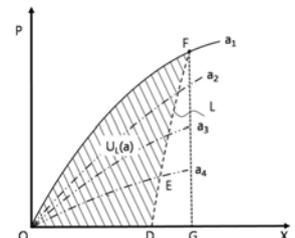


Fig. 2 Load-Displacement curve as a function of initial crack lengths

편의 형상으로 두께가 3.5mm(16ply)로 모델링 한 후, 핀홀 부분에 균열진전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하중을 부과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물성은 Table 1과 같다. 모델은 약 12,200개의 요소 (element)와 약 41,000개의 절점 (node)으로 구성된 쉘요소 (Shell element)를 사용하였으며 균열선단에서는 구속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조밀한 유한요소망으로 구성하였다. 모델링과 해석에는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였다.

해석은 균열길이(a/W)를 0.45, 0.50, 0.55로 증가시키고, 직조된 섬유와 하중 작용방향이 0°, 45°가 되도록 모델을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하중은 핀홀에 일정한 힘을 작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응력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3.2 재료 및 시험 방법

평직 탄소섬유 프리프레그인 WSN-3K를 16ply(3.5mm)로 적층하여 성형·제작하였다. ASTM E399에 따라 CT시편을 제작하였으며, 폭 1mm 노치를 삽입하였으며, 시험편의 섬유배열각도를 하중방향에 대하여 0°/90°, +45°/-45°의 두 방향으로 시험편을 채취하여 섬유배열각도에 따른 파괴인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Instron사의 25ton유압시험기로 상온에서 0.2mm/min의 속도로 수행하였으며, COD 게이지를 사용하여 개구변위를 측정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균열선단에서의 임의의 경로에 대한 J적분법을 이용한 방법과 가상균열 닫힘법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Fig. 4에 정리하였다.

해석결과를 보면, J적분에 의한 값과 가상균열 닫힘법에 의한 G의 경우 값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으며, 균열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45°/-45°의 해석값들이 0°/90°의 경우에 비하여 약 50%정도 낮은 값들을 나타내었다.

Fig. 5에는 파괴저항시험을 통해 구한 전에너지 해방율  $G_T$ 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값을 해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0°/90° 시험의 경우에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45°/-45°의 시험 결과는 시험 결과가 다소 높게 평가가 되었다.

또한, 섬유 배열각도에 따른 파괴거동을 살펴보면, Fig. 6에서와 같이 섬유 배열방향과 하중이 이르는 각이 커짐에 따라 하중에 수직인 방향이 아닌 섬유배열방향에 수직인 방향, 즉, 균열선단에서 섬유 배열방향에 따른 수직인 힘과 수평한 힘으로 그 힘이 분해됨으로써 전단에 의해 그 값이 작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하중방향과 섬유배열각이 커짐에 따라 면내 전단응력의 발생으로 시험의 파단 모드가 섬유 파괴에서 전단에 의한 파괴로 변화하면서 강도가 저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결론

해석과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석결과에 있어서, J적분에 의한 값과 가상균열 닫힘법에 의한 G의 경우 값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으며, 균열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45°/-45°의 해석값들이 0°/90°의 경우에 비하여 약 50%정도 낮은 값들을 나타내었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E_L$ (GPa)	$E_T$ (GPa)	$G_{LT}$ (GPa)	$\nu_{LT}$
55.0	55.0	4.75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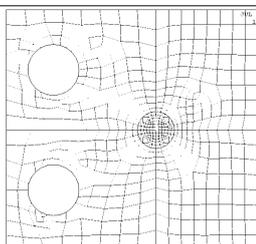


Fig. 3 Configuration of CT speci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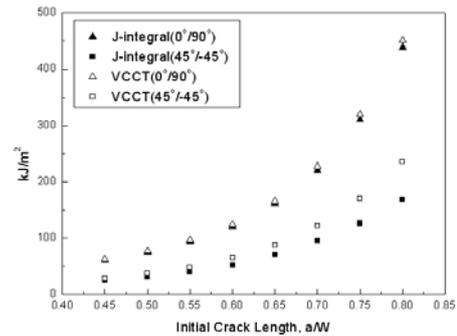


Fig. 4 The comparison with the analysis meth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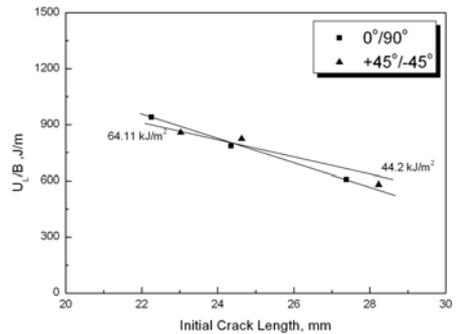


Fig. 5 The curve of UL/Bvs.initialcrackleng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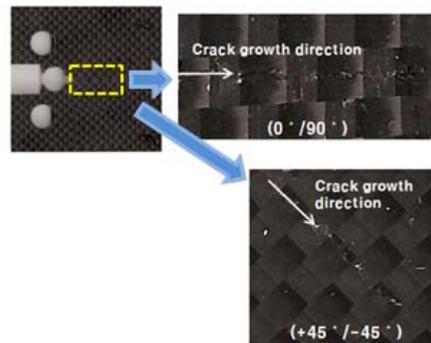


Fig. 6 Crack growth direction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fiber

2. 일반궤적법에 의한 파괴인성평가 결과, 0°/90° 시험의 경우에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45°/-45°의 시험 결과는 시험 결과가 다소 높게 평가가 되었다.

3 섬유 배열방향과 하중이 이르는 각이 커짐에 따라 하중에 수직인 방향이 아닌 섬유배열방향에 수직인 방향, 즉, 균열선단에서 섬유 배열방향에 따른 수직인 힘과 수평한 힘으로 그 힘이 분해됨으로써 전단에 의해 그 값이 작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

본 논문은 2단계 두뇌한국 사업(BK21)과 2009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07-0055842).

참고문헌

- 김광수, 김상태, “직물탄소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파괴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16(3), 497~505, 1992.
- S. P. Heo, W. H. Yang, C. Kim, “Stress Intensity Factors for Elliptical Arc Through Cracks in Mechanical Joints by Virtual Crack Closure Technique,” KSME international Journal, 16(2), 182~191, 2002.
- J. R. Rice, Computer Methods in Applied Mechanics and Engineering, Vol. 17-18, No. 2, pp. 411-442, 1920.
- 최영근, 이윤택, 이택순, “SMC 복합재료와 Carbon/Epoxy 복합재료의 파괴인성평가,” 한국해양공학회지, 7(1), 25~32, 1993.
- ASTM E399, ASTM international. 2006.
- S. J. Kim, S. H. Chang, Trans. of the KSME, Vol. 30, No. 7, pp. 857~864, 2006.